방학 중 소프트웨어 나눔 축제라는 중학생 대상 교육 활동을 준비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대단함을 느꼈다.

마침 한국사 발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일제 시대 조선의 교육을 주제로 삼았다.

그 중 국어를 연구하고 제자들을 양성한 주시경을 최종 주제로 선택하였다.

주시경은 1876년 12월 22일 황해도 봉산군에서 태어난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국어학자이다.

주시경은 한문을 배우는 중 뜻도 알 수 없는 어려운 한문을 읽고 다시 우리말로 풀이하는 한문 강독법에 의문을 품고 국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학이시습지면 불역열호아 →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후 서울로 상경하여 1894년 배재학당에 입학한다.

국어 연구에 매진하던 중 주시경은 서재필에게 발탁되어 독립신문을 출간할 때 순 한글로 교정보는 일을 했으며 독립협회에도 참여하였다.

1900년 6월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국어 연구뿐만 아니라 양지과(지리학), 수물학(수학)등에도 엄청난 학구열을 보이며 여러 학교(간호원양성학교, 공옥학교,명신학교,숙명여자고등학교,서우학교,협성학교,오성학교이화학당,흥화학교,기호학교,융희학교,중앙학교,휘문의숙,보성중학교,사범강습소,배재학당 등)에서 강사를 맡게 되었는데 책가방을 쓰지 않고 보따리에 책을 넣고 다니면서 빡빡한 수업 일정 때문에 늘 바쁘게 뛰어다녔고 그로 인해 보따리가 대차게 휘날리는 탓에 “주보따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1921년 주시경의 제자들은 한글 연구와 보급을 위해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조선어 연구회의 후신인 조선어 학회는 훈민정음 반포일을 ‘가갸날’ 혹은 ‘한글날’로 명명하고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한글 보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여 통일된 표준어와 맞춤법 등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조선어 학회의 한글 운동은 일제에 맞선 문화적 민족운동이자 사상적 독립운동이었다.

만약 그때 검퓨터가 있었다면.. (맞춤법 검사기 프로젝트 시연)